

혼인의 관계망을 통해 본 16세기 호남유학*

김 경 호**

- I. 들어가며
- II. 낙남현상과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
- III. 김인후의 소학 전승과 유희춘 혼맥의 재발견
- IV. 효행의 유교적 공감장, 소쇄원
- V. 관계망의 중첩과 호남학술의 부상
- VI. 마치며

국문초록

이 글은 혼맥 네트워크가 호남유학의 학적 네트워크 구축과 어떻게 연동되고, 이들의 관계망에서 파생되었던 학술적 논의들은 어떠한 학술적 경향성을 띠고 있는가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족 만들기’라는 매우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경험적 지평을 통하여 16세기 호남유학의 지층과 구성물들을 탐구한 것이다. 이 글에서 ‘가족구성’의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 중심소재는 김인후 가계를 중심으로 한 16세기 호남 사족들 사이에 행해졌던 ‘혼인’에 의한 ‘혼맥’이다. 제도화된 사회·문화적 양식이자 경제·정치적인 관계 맺기 방식인 ‘혼인’을 통해 이질적인 家族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동기화된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1-A00006).

**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인문한국 교수 / mana2009@jnu.ac.kr

다. 혼인은 一家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연관된 宗族 공동체의 삶을 변형시키는 계기로 작동한다.

논자는 이 글에서 김인후를 중심으로 한 ‘혼맥’의 사회적 연결망을 검토함으로써 조선유학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16세기 호남유학의 두 가지 역량을 확인하였다. 첫째, 소학적 실천과 연결된 사적인 ‘孝’의 영역이 ‘혼맥’을 통해 ‘관계망’으로 포섭됨으로써 공적인 영역에서 ‘사회윤리’로 재구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호남사류들의 소학적 자아성찰에 근거한 효의 감성은 16세기 호남유학의 공감적 특질과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동한다. 둘째, 산개하였던 학술 자원의 역량이 ‘혼맥’을 통해 ‘학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 과정에서 성리학 이론에 대한 논의가 증폭됨으로써 ‘학술토론’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김인후를 축으로 하는 16세기 호남지역의 혼맥 양상에 대한 탐구는 비록 제한적이지만 호남유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한국유학사의 지평에서 논의하는 것이기도 하다.

◆ 주제어

가족구성, 사회적 관계망, 혼맥, 학맥, 소학, 효, 공감장

I. 들어가며

이 글은 훈인을 통해 구성되는 훈맥 네트워크가 호남유학의 학적 네트워크와 어떻게 연동되고, 이들의 관계망에서 파생되었던 학술적 논의들은 어떠한 경향성을 띠고 있는가를 시론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특히 이 글에서는 호남의 장성을 세거지로 하고 말년에 순창에 우거했던 金麟厚(河西, 1510-1560, 본관 蔚山)를 중심에 놓고, 그의 자손들이 타가문과 훈인을 계기로 가족을 구성하였던 훈맥 네트워크를 당대의 인적, 학적 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살펴보았다. 오늘날도 누군가에 의해서 시도되고 있을 ‘가족 만들기’라는 매우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경험적 지평을 통하여 16세기 호남유학에서 발견되는 효의 감성과 성리학적 사유를 탐구한 것이다.

이 탐구의 과정은 선행되었던 다수의 ‘호남유학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¹⁾, 선행 결과들에 대한 암묵적 승인의 방식을 취하지는 않는다. 기존에 통용되고 있는 호남유학과 관련한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들조차도, 그것이 어떻게 생산되어 소비되고, 유통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시대에 ‘의리’이나 ‘절의’와 같은 개념들이 어찌서 호남유학의 핵심이라고 말해지고, 그것을 호남정신을 구성하는 精神素로 선취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를 묻는 것도 한 방법이다.²⁾

그러나 의리나 절의와 같은 ‘만들어진 전통’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물음은 은폐되어 있다. 추상화된 개념은 그것들 이면에 응성거리는 ‘숨은 힘’들을 보지 못하게 한다. 의리와 절의를 호출하기 전에 우리는 스

1) 호남의 유학에 대한 근대적인 연구는 이을호에 의해서 개시되었다. 그는 호남유학의 흐름을 장성권의 전통유학과 강진권의 개신유학(실학)으로 구분하면서, 전통유학의 경우에는 김인후와 기대승 중심의 주기론, 기정잔기우만 중심의 유리론, 양산보와 송순 중심의 시문학 등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을호, 다산학연구원 편, 『이을호전서』 Vol. 8, 서울: 예문서원, 2000. 365쪽.

2) 안진오는 호남유학의 특징을 “의리정신과 실천정신”에서 찾고 있지만 ‘호남유학’ 자체가 “하나의 이론체계를 지니는 학문”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한다. 안진오, 『호남유학의 탐구』, 서울: 이회문화사, 1996. 13쪽 참조.

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기라성 같은 학자와 정치가를 배출했던 16세기 호남 유학의 역동적인 역량이 ‘그때’는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왜 그렇지 못한 것일까? 당대 최고의 학술과 문화예술의 공감장이 ‘그때’ 호남에 구축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였을까? 이 글은 이와 같은 물음을 ‘혼인’을 매개로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학술 네트워크의 연동이라는 차원에서 논의한다. 기존의 연구가 문집류의 텍스트 분석과 사실들의 재구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면³⁾, 이 글은 혼인이라는 매우 사회적이고 문화적이며, 게다가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기도 한 가족구성의 관계맺기 방식을 논의의 주요한 소재로 다룬다.⁴⁾

이 글에서 주목하는 대상은 김인후의 가계다. 그가 조선유학사에서 호남의 유학자로는 유일하게 문묘에 배향된 인물⁵⁾이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하지만 그보다는 김인후가 자손들의 혼인을 통해 향촌의 서류들과 폭넓은 혼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혼인에 의한 가족의 탄생은 당사자나 그 부모들의 관계맺기에 그치지 않는다. 혼인의 파급력은 친인척 결합의 한 형태이자 가문과 가문의 일원들이 연결되는 ‘확산된 가족’을 구성한다. 김인후는 두 아들과 세 딸, 손자 한 명의 혼사를 통해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여섯 가문과 그 종족의 일원들과도 관계를 맺는다. 인적 교류가 제한적이던 전통시대에 혼인은 다른 존재들, 이를테면 다른 지역이나 다른 가문의 일원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구성하면서

-
- 3) 호남유학을 ‘호남사림’으로 특화하여 학맥과 사상을 광범위하게 추적하고 있는 대표적인 저술로 고영진의 『호남사림의 학맥과 사상』(서울: 혜안, 2007)을 꼽을 수 있다. 이 저술은 호남유학의 형성과 전개 과정에 등장하는 인물과 논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4) 이정선은 한국사회에서 가족에 대한 온전한 이해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가족=혈연 공동체’라는 인식과 맹목적 이미지를 탈피하여 ‘역사적 관점’에서 파악할 것을 제안한다. 이정선, 「가족사, 가장 오래된 새로운 역사- 한국 근현대 가족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역사비평』 Vol. 104, 역사비평사, 2013. 참조.
 - 5) 『河西集』 卷首, 「文廟從祀敎書」. “경은 해동의 염계요, 호남의 수사로다. 성명 음양의 심오는 저 태극도와 귀취를 같이하고, 격치성정의 근원은 바로 소학서에 힘을 쏟았다.”

예상하지 못한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이 글에서 논자가 혼맥의 관계망을 고찰하려는 것은 첫째, 전통시대 가족성의 일단을 확인하려는 데 있다. 가족구성에 관한 다양한 관점이 상존하고 있지만⁶⁾, 이 글에서는 남녀의 결합이라는 혼인의 과정을 전제로 구성되는 조선시대 유교적 가족탄생⁷⁾의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그렇다고 가족구성 자체를 탐구한다는 것은 아니다. 둘째, 가족의 탄생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관계망은 16세기 전반기 호남의 학적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와 어떻게 연동되는가를 살펴려는 것이다. 셋째, 혼맥과 인맥 그리고 학맥의 연결 과정에서 당대 호남의 유학자들이 고민하였던 것은 무엇이고, 이들이 향촌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는 것이다.

II. 낙남현상과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

호남유학을 거론할 때, 선행연구자들은 ‘湖南’이라는 별칭의 유래에 대한 검토와 ‘호남과 유학’ 혹은 ‘호남과 사림’을 결합한 용어의 타당성에 대해 먼저 언급한다. 호남이라는 말은 全羅道를 가리키는 별칭이다. 고영진은 선행 연구에서, 이 별칭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중반부터이고, 이 같은 별칭의 사용은 “전라도가 행정 단위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적 공동체로서의 지역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⁸⁾

고영진의 주장처럼, ‘전라도’ 혹은 ‘호남’이라는 용어가 출현하였다는 것은, 이것이 지시하는 ‘지역’이 특정한 비교 대상과 다른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특이성을 어떤 점에서 발견할 수

6) 권용혁, 「한국의 가족주의에 대한 사회철학적 성찰」, 『사회와 철학』 Vol. 25, 사회와 철학연구회, 2013. 205-215쪽 참조.

7) 한국사회에서 전통적인 가족구성과 종족 변화 과정은 다음을 참조하라. 이광규, 『한국의 가족과 종족』, 서울: 민음사, 1990.

8) 고영진, 『호남사림의 학맥과 사상』, 서울: 혜안, 2007. 17쪽 참조.

있을까? 이 물음은 ‘호남유학’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우리는 무엇을 ‘호남유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16세기에 형성된 호남유학이라는 것이 한국유학의 지평에서 어떠한 특이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시민권은 여전히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16세기 호남유학의 특이점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원론적이지만 매우 다층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16세기적 현상, 곧 ‘호남’이라는 별칭이 16세기 중엽에 이 지역에서 쓰이게 된 사상·문화적 토대가 무엇이었던지는 우선적으로 해명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 가운데 박학래의 견해는 주목할 만하다. 그는 16세기에 발아하기 시작하여 조선유학의 판도를 바꾸어 놓은 호남유학의 기반을 고려말-조선 개국기의 ‘落南’ 현상에서 찾고 있다.⁹⁾ 러말에 不事二君의 태도를 취했던 일군의 유학자들이 조선개국에 반대하여 낙향하게 되고, 그런 인사들 가운데 한성과 떨어져 있으면서도 기후와 물산이 풍부한 남도로 낙향한 경우가 그러한 사례라는 것이다.

낙남 현상은 국가적 변란이나 사회와 같은 참혹한 살육이 자행될 때, 더욱 빈번하게 나타난다. 특히 연산조의 戊午土禍와 甲子土禍, 그리고 중종대의 己卯土禍 시기에 죽음의 공포정치를 피해 정계에 진출했던 사류들이 낙향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앙과 지방을 구분했던 유교적 통치시스템 하에서 안락했던 중앙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척박한 타향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사회를 피하여 처가지향인 광주로 낙남했던 奇進(勿齋, 1487-1555, 본관 幸州)의 가계가 그러했고, 기진의 아들 奇大升(高峯, 1527-1572)은 그러한 낙향에 울분을 토로하면서 한편으로는 上京從仕의 열망을 갖고 있던 인물이었다.

낙남의 또 다른 형태가 ‘流配’다. 한때 행세하던 집안의 일원이자 유교적 교양을 학습한 관료학자였던 이들이 낮은 타향에 비자발적으로 이주하여 산

9) 박학래, 「조선시대 호남유학의 전개 양상과 의의 - 지방분권시대의 전통사상 연구와 관련하여」, 『철학연구』 Vol. 99, 대한철학회, 2006. 186-192쪽 참조.

다는 것은 여러모로 곤혹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죄목에 따라 유배지의 생활에도 편차가 있었지만 다수의 유배자들은 자신의 근거지에서 떨어져 외딴 곳에 고독하게 산다.¹⁰⁾ 유배지의 생활에 적응한 이들 가운데는 지역의 학술 문화 진작에 일조하는 이들도 나온다. 정보의 유통과 학술의 교류가 제한적이었던 시대에 유배자들과 지역민들과의 만남과 교류는 향촌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남도의 순천에 유배되었던 김굉필과 지역의 사류들이 만나는 과정도 그러한 사례이다.¹¹⁾

지방의 문화가 바뀌고 학술이 일어나면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질적인 것들에 대한 수용은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저항과 반발, 혹은 배제를 일상화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질적인 것들이 어떻게 관행화되고 익숙한 것들과 공존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16세기 이래로 호남의 유학자들이 국가의 공식적인 시험을 통해 요직으로 진출하고, 새로운 학술이 호남지역에서 산출된 것을 보면, 이질적인 것들과의 경쟁 과정에서 이 지역 사회의 역량이 창출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그러한 변화는 무엇에서 비롯하였을까? 변화는 다층적인 요소들이 결합되어 나타나겠지만, 주목되는 점은 학술의 불모지였던 호남지역에서 ‘소학적 실천’이 매우 중요한 흐름으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김경호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선전기에 유통된 성리서적 가운데 성종대에는 『性理大全』, 연산대에는 『大學衍義』가 두드러지고, 중종대에는 『近思錄』과 『小學』이 대두하다가 중종12년(1517)을 기점으로 해서 『소학』이 집중적으로 거론된다. 이러한 현상은 金安國(慕齋, 1478-1543, 본관 義城)을 중심으로 하는 일단의 유학자들이 중종의 용인 하에 ‘鄉約’을 시행하는 것과 밀

10) 조선시대 유배형벌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지철호, 「조선전기의 유형」, 『법사학연구』 Vol. 8, 한국법사학회, 1985; 신규수, 「조선시대 유배형벌의 성격」, 『한국문화연구』 Vol. 23, 한국문화연구원, 2012.

11) 이종범은 “후진학자가 김굉필과 같은 무오적객을 사사하며 받은 영향도 ‘새로운 것’이 아니라 호남 내부의 여건과 분위기의 연장선상의 증폭”이라고 주장한다. 이종범, 「15세기말-16세기 중반 전라도 유배인의 활동과 교유양상」, 『역사학연구』 Vol. 41, 호남사학회, 2011. 62-63쪽.

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중종14년(1519) 음력 11월 이후 훈구관료들에 의한 趙光祖(靜庵, 1482-1520, 본관 漢陽), 金湜(沙西, 1482-1520)을 비롯한 신진사류에 대한 숙청으로 인해 향약에 대한 논의는 후퇴하고 『소학』은 금기시된다. 己卯土禍는 『소학』을 존신했던 사류들에 대한 탄압의 성격을 보여준다. 『소학』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중종 후반기(중종38년, 1543)에 사림파가 다시 정계에 복귀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거론된다.¹²⁾

16세기 전반기 조선사회에서 『소학』이 강조되었던 것은 유학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修己와 律身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려는 기풍의 진작과 연관된다. 소학적 실천은 內聖外王의 유교적 통치를 현실세계에서 구현하려던 소장사류들의 운동에서 비롯하였다. 그 중심에 金宗直(估畢齋, 1431-1492, 본관 善山)-金宏弼(寒暄堂, 1454-1504, 본관 瑞興)을 계승하면서 至治를 표방했던 조광조가 있었다. ‘소학동자’로 불렸던 김굉필은 熙川의 유배지에서 조광조를 가르쳤고, 전라도 순천의 昇平으로 配所가 옮겨지면서 호남지역에 『소학』의 자양분을 뿌린다.

기묘사화의 희생자였던 조광조가 전라도 능주로 유배되고, 짧은 기간이지만 이곳에서 梁彭孫(學圃, 1488-1545, 본관 濟州)을 비롯한 호남의 사류들과 만났다는 것은 호남유학사에 일대 사건이었다. 조광조의 능주 謫居와 그 遺墟는 후대에 호남유학의 위상을 대변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한다.¹³⁾ 기묘사화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낙향하거나 낙남을 선택한 후 향리에 은거면서 『소학』의 가르침을 내면화 하고 강학을 통해 미래를 준비한다.¹⁴⁾ 기묘사

12) 김경호, 「16세기 조선 지식인 사회의 ‘심경’ 수용과 철학적 담론의 형성」, 『동양철학』 19, 한국동양철학회, 2003. 참조.

13) 조광조를 통해 호남의 유학을 율곡학통으로 연결하려는 시도가 후일에 송시열과 같은 노론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1667년 4월에 조광조의 유허지에 세워진 <정암 조선생적려유허추모비>의 비문은 송시열이 짓고, 글씨는 송준길이 썼다.

14) 김용현은 “『소학』 실천을 바탕으로 조선을 도학의 나라로 만들고자 했던 조광조와 기묘사림의 지지주의 기획은 그들의 죽음과 함께 끝나버린 것은 아니었다.”고 평가한다. 김용현, 「조선전기 사림과 성리학의 전개와 특징」, 『국학연구』 Vol. 19, 한국국학진흥원, 2011. 55-57쪽.

화로 화순 동북에 유배되었던 崔山斗(新齋, 1483-1536, 본관 光陽)를 찾아가 학문을 익혔던 김인후나 柳希春(眉巖, 1513-1577, 본관 善山)도 그러한 수혜자이다.

이렇듯 출처를 중시했던 유교지식인들의 호남지역으로의 비자발적인 정치적 유배나 자발적 귀향에 의한 낙남의 현상은 향촌사회의 지적 역량과 결합하여 새로운 학풍을 낳는다. “성인은 학문을 통해 기약할 수 있다”고 하는 “聖可學”¹⁵⁾의 도학적 현실화 가능성은 『소학』의 가르침에 스며들어 호남지방의 학술관도를 일신한다. 이러한 학술적 흐름이 ‘김굉필-조광조’로 이어지면서 공간적으로 호남의 ‘순천-능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주목되는 지점이다.

Ⅲ. 김인후의 소학 전승과 유희춘 혼맥의 재발견

유교적 성인을 일상에서 닮아가려는 “성가학”의 ‘삶-정치적 지향’이 낮은 단계의 실천은, 물뿌리고 쓸며 부름과 물음에 응답하고(灑掃應對) 나아감과 물러남의 예절(進退之節)을 익히는 것이고, 부모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며(愛親敬長) 스승을 존경하고 벗을 가까이하는 도리(隆師親友之道)와 다르지 않다는 깨달음에서 시작된다. 허위와 가식의 세상에서 유교적 진리와 인간으로서의 自尊과 品位을 지키는 공부가 ‘효의 윤리성’을 관계의 공동체에서 체화하는 소학적 실천에 담겨 있다. 소학적 실천의 일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호남의 유학자가 김인후이다.

김인후와 혼맥으로 연결되는 가계는 여섯 곳이고, 이 가계는 많은 방계의 가족들로 이루어져 있다. 김인후는 驪興尹氏 사이에서 2남 4녀를 두었는데¹⁶⁾, 큰아들 金從龍을 태인의 李恒(一齋, 1499-1576, 본관 星州)의 사위로

15) 『通書』, 「聖學」第22. “聖可學乎? 曰, 可.”

16) 양자징과 혼인한 둘째 딸과 막내 딸은 夭死한다.

보내고 그 딸을 새로운 가족으로 맞아들인다. 김인후의 둘째 아들 金從虎는 晉璧의 딸과 혼인하여 인척을 형성한다. 또한 趙琳의 아들이자 자신의 문인이었던 남원 출신의 趙希文(月溪, 1524-1578, 본관 咸安)을 사위로 맞아 자신의 학문을 전수하고, 담양 소쇄원의 주인인 梁山甫(瀟灑, 1503-1557, 본관 濟州)의 아들 梁子徵(鼓巖, 1523-1594)을 사위로 삼아서는 학술과 세상의 인정을 토론한다.

부 성명	본관	자녀	김인후의 가계
李恒	星州	딸	金從龍(長男)
晉璧	南原	딸	金從虎(次男)
趙琳	咸安	趙希文, 府使	長女
梁山甫	濟州	梁子澄, 縣監	次女
柳希春	善山	柳景濂, 察訪	三女
奇大升	幸州	딸	孫子, 金南重(김종호의 아들)

김인후는 오래된 지기였던 담양의 유희춘이 流刑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柳景濂을 사위로 맞아들인다. 유희렴을 사위로 삼는 것은 유희춘과의 오래된 신의를 지키는 일이었다.¹⁷⁾ 김인후의 혼맥은 金從虎의 아들인 손자 金南重을 통해 幸州奇氏 기대승의 딸을 손자며느리로 맞는다.

가족구성에 대한 현대적 관점은 다양하지만, 전통시대에는 조부모님과 부모님 그리고 자녀라는 삼대가 기본적인 구조를 이루고, 경우에 따라서는 친인척이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는 확대된 가족의 형태를 띠기도 하였다.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하나 李珥(栗谷, 1536-1584, 본관 德水)는 구세동거를 꿈꾸고 실제로 그와 같은 가족공동체를 실현하려 했다.¹⁸⁾ 김인후가 자녀들의

17) 김인후가 유희춘의 아들을 사위로 삼아 두 집안이 혼맥으로 연결되는 사연을 『燃藜室記述』은 기록하고 있다. 과거에 입격하기 전 유희춘과 김인후는 성균관에서 공부하였는데, 김인후가 염병에 걸려 위급하게 되자 유희춘은 그를 자신의 숙소로 데려가 극진하게 간호하여 살려냈다. 김인후는 이 은공을 잊지 않고 있었는데, 유희춘이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귀양을 가게 되자, “그대가 이제 먼 곳으로 귀양 가는데 처자들이 의지할 곳이 없을 것이다. 그대의 어린 아들은 내가 사위로 삼을 것이니 그대는 걱정하지 말라”고 위하였다. 『燃藜室記述』 卷9, 「仁宗朝故事本末」, <金麟厚>.

18) 『栗谷全書』 卷16, 「同居戒辭」.

혼인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는 과정은 실상 새로운 가문과의 관계맺기의 과정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혼인을 주체적인 개인과 개인의 만남과 결합으로 보려는 현대적인 결혼관은 전통시대의 그것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이 시기의 혼인과 가족구성의 조건 및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가족학과 사회학, 인류학 분야, 최근에는 역사학 분야에서도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기에 이 문제에 관한 논의는 선행 연구를 참조하는 수준에서 제한하겠다. 다만, 16세기를 전후한 조선시대의 혼인과 가족문화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수준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오늘의 시점을 기준으로 전통시대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경험하고 학습했던 ‘조선에 대한 이미지’는 조선시대 전 기간을 통괄한 것이기 보다는 현대와 연결된 ‘조선후기’ 끝 부분의 내용들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조선시대 혼례나 가족제도에 대해 ‘여자가 시집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거나 ‘친족위주’의 가부장적인 가족제도가 주류일 것이라는 관점이 그러한 사례다.

이러한 시각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전적으로 맞는 것도 아니다. 적어도 16세기 중후반까지는 『朱子家禮』가 보편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親迎이 보편적인 혼인의 풍속은 아니었다. 이 시기 조선에서는 여자가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장가간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었다. 이것을 婿留婦家라 한다. 그리고 자식이 딸만 있을 경우에는 同姓의 집안에서 아들을 입양하기도 하지만, 아예 입양을 하지 않고 딸의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外孫奉祀를 맡기기도 하였다. 또한 재산을 분배할 때는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않고 균등하게 분배하였다.¹⁹⁾ 이러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龍仁李氏分財記」이다.²⁰⁾ 「용인이씨분재기」가 1549년 강원도에서

19) 전경목, 「分財記에 나타난 조선시대 생활 풍속의 변화」, 『대동사학』 Vol. 1, 대동사학회, 2002. 104-108쪽.

20) 「龍仁李氏分財記」는 이이의 외할머니가 자신의 다섯 딸들에게 재산을 나눠준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여기에는 둘째 딸인 사임당 신씨의 아들 이이에게 봉사조로

작성된 것이라면, 호남의 분재 사례는 1572년에 작성된 宋純(俛仰亭, 1493-1583, 본관 新平)의 「自筆分衿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도 자녀균등 분배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²¹⁾

김인후가 자녀의 혼인을 통해 새로운 식구를 맞아들이고 타가문과 관계를 맺는 실상은 자료의 한계로 확인이 어렵다. 다행히 유희춘의 『眉巖日記』는 당시 양반 사대부가의 혼인 형태나 가족의 일상사를 기록하고 있어 부분적인 확인은 가능하다.²²⁾ 예를 들어, 『미암일기』에는 유희춘의 사돈이자 친구인 김인후에 대한 기록이 보이고, 김인후의 아들이자 柳光文의 외삼촌 김중호에 대한 기록이 보이고, 김인후의 딸인 며느리 ‘金婦’가 유희춘과 그의 처 洪州宋氏와 친밀하게 지내면서 가산을 관리하는 것도 보인다. 또한 며느리인 김부가 아들 유광선의 혼담이 오가는 중에 상대방이 富만을 좇고 禮를 지키지 않자 혼사를 물리쳤다는 기록도 보인다.²³⁾

김인후와 유희춘 자녀의 혼인이 주목되는 것은 이들이 혼맥 만들기에 그치지 않고 『소학』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접점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인후와 유희춘은 혼맥 이전에 김안국의 문하로 연결된다. 김안국은 당시 누구보다도 『소학』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경상도 관찰사로 재임할 때(1517-1518) 구결을 표기한 『소학집설』을 보급하고²⁴⁾ 지역의 향교마다 『소학』 교육을 장려하여 시를 지어 보낸 기록이 있다.²⁵⁾ 김인

재산을 나눠주고, 넷째 딸의 아들 권처균에게 배묘조로 오죽헌 등의 재산을 상속한다는 기록이 담겨 있다.

21) 김일근, 「면양정 송순 자필분재기의 문화사적 의의」, 『고문연구』 Vol. 10, 한국고문연구회, 1997. 참조.

22) 16세기 중후반 조선의 사대부 양반들의 가족제도에 관한 세세한 정보는 유희춘의 『미암일기』를 분석하여 ‘조선중기의 가부장제와 가족과 가산’을 논의하고 있는 다음을 참고하라. 박미혜, 『유교 가부장제와 가족, 가산』, 서울: 아카넷, 2011. 19쪽.

23) 『眉巖日記』卷4, 癸酉(1573) 12월 10일. 예나 지금이나 경제력이 혼사의 중요한 요건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24) 『소학』 보급을 위한 김안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정재훈, 「조선전기 소학 이해와 그 학습서」, 『한국계보연구』 Vol. 6, 한국계보연구회, 2016. 85-100쪽.

25) 『慕齋集』卷15, 「先生行狀」. “教人以小學爲先, 所著勸小學詩, 邑皆有之.” 『慕齋集』卷1에 수록된 詩에는 「勸陝川學徒」와 같은 형식의 글이 보이는데, 이는 거의 『소학』

후는 10살 때(1519) 전라도 관찰사가 된 김안국에게 나아가 『소학』을 배웠고²⁶⁾, 유희춘도 25살 때(1537) 김안국에게 수학한 동문이었다. 스승인 김안국의 『소학』 중시의 학술적 흐름은 김인후²⁷⁾와 유희춘에게 계승된다.

김인후의 『소학』에 대한 인식²⁸⁾과 소학적 실천은 그의 「孝經刊誤拔」과 「孝賦」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효경간오발」은 유희춘이 보여준 주희의 「효경간오」를 필사한 후 발문을 지은 것이고²⁹⁾, 「효부」는 양산보의 「효부」를 차운하여 지은 것이다. 「효경간오발」에서 ‘효’가 성인의 도를 실현하는 근본이라는 점을 학술적으로 평가했다면³⁰⁾, 「효부」는 효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효성을 문학적 언어로 서술하고 있다. 김인후의 두 저술은 유교적인 수신의 핵심을 ‘효’의 문제로 삼고 있는 그의 관점에 준거하여 『소학』적 실천의 내용을 부연하고 있는 셈이다.

유희춘은 경학에 해박하면서도 『소학』을 유교적 실천서로 제기한다. 그는 주자성리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서적을 『소학』으로 보면서 사서를 중요시한다.³¹⁾ 유희춘은 선조와의 대화에서 “책을 읽어 도의를 강명하는 데는 『사서』·『소학』·『근사록』·『대학연의』·『통감강목』 등 이 여덟 책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 원나라 대유 허형도 일찍이 ‘주문공의 『소학』과 『사서』를 나는 신명

공부를 언급하고 있다.

- 26) 『河西集』, 「年譜」. “先生十歲. 往拜慕齋金先生, 受小學.”
- 27) 『河西集』, 「年譜」. “先生三十七歲 … 先生自歸家以後, 專心講學 … 必使先讀小學, 次讀大學, 一從朱文公成法, 其教二子, 亦以小學.”
- 28) 김인후의 『소학』에 대한 인식은 「弘文館筭子」(癸卯)에 잘 드러난다. “臣等嘗觀小學之書, 本聖賢爲教之遺意, 而凡所以立心行己處事接物之準則, 無不在是, 實繼往開來之要典, 而爲正學之階梯者也.”
- 29) 『河西集』, 「年譜」. “先生三十七歲. 夏六月 著孝經刊誤拔. 先生玉果時, 柳眉巖希春, 自京還鄉, 道經本邑, 賚示朱文公孝經刊誤一帙.”
- 30) 『河西集』 卷11, 「孝經刊誤拔」. “孝者, 百行之原, 而爲仁之本也 … 觀其輯小學書也, 以愛親入孝, 爲立教之先, 而於明倫一篇, 則刪經之繁文, 以爲父子之通論, 而繫之以悖德事親之章. 終以五刑章之起語結之, 而廣之以嘉言, 實之以稽古善行, 則論孝之道, 無有餘蘊.”
- 31) 유영옥, 「미암 유희춘의 존주자 학풍과 경서언해」, 『동양한문학연구』 Vol. 26, 동양한문학회, 2008. 236-238쪽.

처럼 경신한다. 본말이 잘 갖추어져 있어 王者가 세상에 나오면 반드시 이것을 취하여 법으로 삼을 것이다. 이 책만 잘 밝힌다면 다른 글은 다루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³²⁾라고 경연에서 진언한다. 그는 聖學을 공부하는 교본으로 『소학』과 『근사록』, 『사서육경』을 꼽고 있으며, 『六書附註』 두 권을 엮어서 선조에게 진상할 정도였다.³³⁾

유희춘의 유학적 실천학으로서 『소학』에 대한 이해는 그의 「庭訓」을 구성하는 근간이다. 「庭訓」은 유계린이 자식들을 가르쳤던 유희춘을 유희춘이 정리하여 ‘氣像’ ‘事親’ ‘守身’ 등의 <十訓>과, ‘사람을 대할 때의 바른 예절’로부터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행동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庭訓內>·<庭訓外編>으로 구성되어 있다.³⁴⁾ 유희춘이 “... 아버님이 집안에서 독실히 행하신 10조를 기록하여 날마다 경계를 더하고자 정훈을 짓노라.”라고 「심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유희춘의 가계는 가학의 전통이 있었다. 유희춘의 아버지 柳桂隣은 崔溥(錦南, 1454-1504, 본관 耽津)의 딸과 혼인하여 柳成春(懶翁, ?-1522)과 유희춘을 낳는다. 유희춘의 외할아버지가 최부다.

최부의 아버지는 김종직의 문인이고 김굉필과는 동학이었던 진사 崔澤이다. 최부는 본래 나주 출신이었지만 해남으로 이주하여 海南鄭氏³⁵⁾ 鄭貴城의 딸과 혼인하여 이 지역의 명망가로 성장한다. 이 시기에 해남으로 이주한 尹孝貞(魚樵隱, 1476-1543, 본관 海南)도 해남정씨의 일가인 鄭貴英의 사위되어 최부와 윤희정은 종동서(사촌동서)로 연결된다. 특히 윤희정의 네 아들 尹衢(橋亭, 1495-1549), 尹衡(1505-1591), 尹行(1508-1592), 尹復(石門, 1512-1577) 중 세 아들(윤구·윤행·윤복)은 문과에 급제한다. 한 가계에서 문과급제자 셋을 배출한 것은 당시로서는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윤구는 호남유학의 초석을 놓는 朴祥(訥齋, 1474-1530, 본관 忠州)의 학술과도 연결

32) 『宣祖實錄』 卷4, <선조 3년(1570) 7월 17일 계미 1번째 기사>.

33) 『眉巖集』 卷20. 「諡狀」. “念人君之學, 尤貴知要, 謂小學近思錄四子六書, 乃聖學之總會, 而帝王之規矩準繩. 能通于此, 則推之他經, 無難事矣. … 爲六書附註二卷, 拜筭以獻.”

34) 『眉巖集』 卷4. 「庭訓」.

35) 정귀감의 관향을 草溪로 표기하기도 한다.

된다. 그는 박상의 행장을 기록한다.³⁶⁾ 또한 정귀영의 첫째 딸은 善山林氏 林秀와 혼인하는데 그는 林億齡(石川, 1496-1568)의 조부이다. 해남정씨 일문은 당대 호남의 명망가였던 최부와 윤�효정, 임수 등과 혼인을 통해 혼맥을 형성함으로써 재력과 학술이 결합된 전형적인 재지사족 성장한다.

유희춘의 큰형 유성춘은 1514년에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환로에 들어섰으나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파직되자 해남의 윤구, 동복에 유배된 최산두와 교유하다 젊은 나이로 죽는다. 호남의 끝자락인 해남과 동복 지역에 조광조와 교유했던 인물들이 기거하면서 학술의 장이 전개된다. 김인후와 유희춘이 최산두를 찾아가 수학하게 되는 것도 이 시기이다. 최부-유계린-유성춘, 윤희정-윤구로 연결되는 인척에서 최산두를 포함한 호남삼걸이 출현했다고 하는 것은 이 두 집안의 학술적 뿌리가 최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늠하게 한다.

이와 같은 인척-학술적 관계망에서 성장한 유희춘은 ‘宋德峰(1521-1578)’³⁷⁾으로 알려진 洪州宋氏 宋駿의 딸과 혼인하여 담양으로 이주하고 유경렴과 딸을 낳는다. 유경렴의 처가 김인후의 딸이다. 김인후의 문인이면서 기대승과 『朱子文錄』을 편집한 宋庭篁은 송준의 동생인 宋駒의 아들이다. 유희춘의 딸은 해남윤씨가로 출가한다. 윤희정의 둘째인 윤구의 아들 尹寬中이 유희춘의 사위다.³⁸⁾ 이렇게 보면 유희춘의 선산윤씨 일가는 탐진최씨 최부-해남정씨의 혼맥으로 연결되고, 해남윤씨 윤희정 일가와 선산임씨 임억령 일가와도 접촉된다. 뿐만 아니라, 홍주송씨, 울산김씨 집안과도 관계망을 맺게 된다. 혼맥으로 연결되는 이들의 가문은 당대의 호남 향촌사회를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의 관계에서도 활발한 정치활동을 전개한 명문가였다. 특히

36) 『橘亭遺稿』, 「林訥齋行狀」.

37) 국문학 분야에는 송덕봉에 대해 ‘16세기 여성시인’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근년에는 역사학 분야에서는 상례와 관련하여 송덕봉을 여성 성리학자로 평가하는 논문도 제출되고 있다. 이성임, 「16세기 송덕봉의 삶과 성리학적 지향」, 『역사학연구』 Vol. 45, 호남사학회, 2012. 111-115쪽 참조.

38) 담양모현관 소장 고문서에는 유희춘의 아들 유경렴과 사위인 윤관중에게 재산이 분배된 분제기가 남아 있다.

이들 가문들이 연계된 학문적 역량은 그 밑바탕에 최부의 가학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고, 그 흐름은 유희춘으로 수렴된다고 할 수 있다.³⁹⁾

IV. 효행의 유교적 공감장, 소쇄원

혼맥을 통해 김인후와 연결되는 호남유학의 공간이 있다. 그곳이 별서이자 자연공간인 瀟灑園이다. 소쇄원의 주인인 제주양씨 양산보는 15세에 담양에서 상경하여 조광조의 문하생이 된다. 얼마 후 현량과에 합격(1519)하지만 출사하지 못하고 기묘사화로 스승이 화를 입자 낙향하여 은일한다. 조광조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제주양씨 일문의 양팽손도 유사한 트라우마를 갖고 學圃堂에 칩거한다. 그의 아들 梁應鼎(松川, 1519-1581)은 중형인 양산보와 교유한다.

졸지에 스승과 동료 선배를 잃은 양산보는 자연을 벗삼으로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는 것으로 자신의 배움과 실천을 증명한다. 그는 모든 행위의 근본은 ‘효’에서부터 비롯한다는 유교적 가르침을 실천궁행하는 것으로써 공부의 처음과 끝을 삼는다. 성리학이 추구하는 도학은 사람다움의 도리, 곧 효에서부터 비롯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양산보는 항상 “사람의 도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어서 사람의 자식된 자로서 부모에게 효도를 못하는 자를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⁴⁰⁾라고 아들인 양자징에게 가르친다.

출사하지 않고 처사적 삶을 통해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자신의 분노와 우울을 달래가는 그의 일상은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된다. 원근의 명사들은 소쇄원을 내방하여 양산보와 도의를 논하고 은일적 삶의 세계를 토론한다. 그런

39) 유희춘의 학문과 삶의 역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정창권, 『홀로 버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서울: 사계절, 2003.

40) 『西河集』 卷16. 「瀟灑園梁公行狀」. “常謂人道莫大於孝, 而爲人子者不能其所當爲.”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김인후였다. 그는 양산보와 사촌동서 사이인 울산김씨 金百鈞을 통해 인맥을 형성하고 있었다. 소쇄원을 찾아 은일과 소요의 흥취를 완상하던 차였지만 인종의 갑작스런 죽음은 김인후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⁴¹⁾ 그럴 때마다 김인후는 소쇄원을 찾는다.⁴²⁾ 이러한 과정에서 소쇄원 주인의 아들 양자정을 김인후가 사위로 맞이한다.⁴³⁾

김인후와 양산보가 자연공간에서 은일과 소요의 자적인 삶을 향유하면서도 그들은 하나의 공동된 실천적 주제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것은 출사하지 않고 향리에 머물며 성리학적 가치규범을 일상 속에서 내면화하는 ‘효’의 실천이다. 소쇄원은 효라는 감성을 구체화 하고 서로 나누는 유가적 공감장이었다. 양산보의 많지 않은 글 가운데 하나가 ‘효에 관한 노래’이다. 이 글은 『소쇄원사실』과 『河西集』에 실려 있다.

아득한 천지에 이치는 두루 흘러/ 수달은 은혜 갠고 여우는 머리 높히네./
하물며 사람인데 뿌리 찾지 않을까!/ 제 몸이 중하다면 어디에서 나왔으며/ 천
금 같은 그 모습은 어디서 이뤄졌나./ 아! 아버지며 어머니며, 실로 나를 낳으
시니/ 노고도 그지없고 사랑도 그지없네./ … 그러기에 성인聖人은 근본에 힘
썼으니/ 여기에서 선한 본성 발휘하란 것이었네/ 받들고 사랑하는 그 뜻을 합
쳐/ 효도라는 이름을 만들었지 …⁴⁴⁾

김인후는 이 부에 차운하여 「효부」를 지어 화답한다.

41) 김인후의 인종에 대한 통곡과 울분은 「유소사」에 곡진하게 드러난다. 김경호, 「그리움의 분노: 김인후의 통곡」, 『감성의 유학』,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2014. 150-154쪽 참조.

42) 김인후는 온전하지 못한 인종의 죽음에 대한 통탄으로 분노와 슬픔의 격정에 휩싸이는데, 그러한 심정은 조광조의 죽음에 대한 양산보의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격정의 자연 치유 공간이 소쇄원이기도 하였다. 소쇄원의 풍광을 읊은 ‘마흔 여덟 개의 노래’는 그러한 사례의 하나다. 『河西集』 卷5. 「瀟灑園四十八詠」.

43) 양산보와 소쇄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김덕진, 「양산보의 기묘사화 체험과 소쇄원 건립」, 『역사학연구』 Vol. 30, 호남사학회, 2007. 87-105쪽.

44) 『瀟灑園事實』 卷2, 「孝婦」; 『河西集』 卷1, 「孝賦」(梁山甫).

…오직 聖人만이 인륜의 지극함이시니/ 公輸子の 矩規요 師曠의 音律과 같
아라./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선으로 나가야만/ 천하에 아버지와 자식들이 안
정 되도다/ …우리 회옹 선생은 홀로 뛰어나 학문을 이어서/ 자세하고 곡진한
小學의 절목을 엮어냈네./ 옛날 군왕들이 베풀어 놓은 것을 회복하고/ 날로 쓰
는 땀땀한 인륜 분명하게 밝히셨네./ 또 자기 몸을 닦는 것으로써 제시하시되/
자식된 도리 다할 것을 먼저 내세우셨네./ … 진실로 小學의 핵심에 밝지 못하
면/ 부모가 천지란 걸 어찌 생각하리오./ 가장 먼저 할 일은 근본 세우는 것/ 어
느 곳에 쓰더라도 모두 넉넉해라.… 45)

양산보의 ‘효’에 대한 감성을 잘 보여주는 이 「孝賦」는 1552년, 그의 나이 49세에 지은 것이다. 이것을 본 김인후는 양산보의 감성에 깊이 공감하면서 효가 인륜의 근본임을 천명하고, 효의 실천과 효를 배양할 수 있는 방법, 학문의 순서를 시로 적어 화답(43세)한다. 그것이 「孝賦次韻」이다.⁴⁶⁾ 효를 실천할 수 있는 근본 공부로 『소학』이 언급된다. 양산보와 김인후가 화답한 「효부」에 대하여 송순은 “공(김인후)은 양군과 오랜 친구사이로 더욱이 두 자녀가 혼인을 하여 서로 정으로 친하고, 서로 덕으로 존경하여 왔다. 두 공의 倡和는 모두가 이륜의 아름다운 일일뿐더러, 학업을 서로 믿고 가볍으로 전한 면을 내가 두 공에서 취하여 경의를 드린다.”⁴⁷⁾는 발문을 짓는다. 일종의 논평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발문을 쓴 송순은 당시 호남의 명유로 지역의 학술과 문예를 주도하던 인물이다. 그는 양산보와 이종사촌이다.

김인후가 양산보의 「효부」에 차운한 것은 두 사람이 사돈 간이면서도 도의지교를 나누던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성리학적 실천윤리의 첫 번째인 ‘효의 실천’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45) 『河西集』 卷1, 「孝賦次韻」(金麟厚). 번역문은 조기영의 번역을 참조하였다.

46) 양산보와 김인후의 「효부」에 대한 내용분석은 다음을 참조하라. 조기영, 「하서 김인후의 <효부>에 대한 고찰」, 『동양고전연구』 Vol. 41, 동양고전학회, 2010. 152-181쪽; 한예원, 「양산보의 <효부>와 <소학> 정신에 관하여」, 『한문교육연구』 Vol. 31, 한국한문교육학회, 2008. 479-481쪽.

47) 『俛仰集』 卷3, 「拔金厚之次梁彦鎮孝賦韻」.

유학의 도학적 성취는 곧 효의 실천에 있다는 것이 그들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김인후가 1543년에 중앙의 관직을 마다하고 부모의 봉양을 위해 ‘옥과 현감’으로 나간 것이나, 『효경간오』의 발문을 짓는 것도 소학적 실천에 바탕을 둔 ‘효’에 대한 관심을 엿보게 한다.

자연 치유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효행의 공간이었기에 소쇄원 경영에는 김인후나 송순뿐만 아니라 인근의 명사들이 대거 참여하게 된다.⁴⁸⁾ 여기에는 광산김씨 가문의 인물들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그러한 이유는 양산보의 처가 광산김씨 金珩의 딸이기 때문이다. 김후는 『주자문록』 간행에 일조했던 環碧亭의 주인 金允悌(沙村, 1501-1572, 본관 光山)의 아버지이다. 김윤제의 손녀사위가 鄭澈(松江, 1536-1593, 본관 延日)이다. 이러한 혼맥으로 인해 정철도 소쇄원의 인맥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양자징과 사촌이자 棲霞堂의 주인인 金成遠(棲霞堂, 1525-1597, 본관 光山), 김후의 손녀사위인 송정황, 이들과 인척을 맺고 있는 高敬命(霽峯, 1533-1592, 본관 長興), 김성원의 스승이자 息影亭 주인 林億巖(石川, 1496-1568, 善山) 등도 소쇄원에 출입하며 공감의 접점을 형성한다. 고경명의 경우에는 울산김씨 김백균과 그의 처 광산김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의 남편으로 ‘담양-창평’ 지역의 핵심 재지사족 가문과 연결되어 있다. 그는 아버지 高孟英과 함께 李樛의 당인으로 지목되어 실각한 후⁴⁹⁾ 낙향한다. 고경명이 18여 년 동안 광주 鴨保村에 은거하였음에도 지역에서 유력한 인사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학문적 역량뿐만 아니라 이러한 혼맥으로 이루어진 인맥의 영향이 크다.

이 효의 가르침은 대를 이어 소쇄원의 공간을 채워간다. 양산보를 잇는 양자징이 祠官에 임명되었다가 居昌 縣監으로 벼슬에 나가게 되는 것도 그의

48) 소쇄원의 초기 경영에는 송순의 지원이 컸다. 양산보의 어머니 신평송씨가 송순의 고모이다. 소쇄원의 건립과 양산보의 인척 교류망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권수용, 「소쇄원의 역사와 인문활동 연구」, 전남대학문화재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2008.

49) 이량 당인들에 의한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김경호, 「불온한 공감-존재의 사유, 너머」, 『한국철학논집』 Vol. 52,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7.

효행이 알려져 ‘효자’로 천거되었기 때문이다. 양자징을 이어 소쇄원을 경영하는 梁千運의 경우, 『소학』과 『삼강행실』 등의 책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집안은 효도로 전해와 본래 토지의 문권이 없으니, 너희들은 각자 공경하고 삼가서 너를 낳아주신 부모를 욕되게 하지 말라.”⁵⁰⁾고 경계한다. 이런 가르침은 유교적 실천의 핵심도리인 효와 그 효를 行道의 첫 번째로 삼는 ‘소학적 실천 공간’으로 소쇄원이 기능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소쇄원은 당대 장성-담양-창평-광주 인근의 인물들이 출입하는 ‘은일과 자적의 공간’이자 ‘효’를 내면화 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접속하고 만나는 ‘共感場’이었던 셈이다.

V. 관계망의 중첩과 호남학술의 부상

김인후와 혼맥을 맺고 있는 호남의 명유 가운데 비교적 연장자에 속하는 이항은 한성에서 태어났지만 泰仁으로 이주하여 살며 김인후를 비롯한 노수신, 기대승 등 지역의 명사들과 교류하고 후학을 양성한다. 그는 朴莢(松堂, 1471-1540, 본관 密陽)에게 배우고 曹植(南冥, 1501-1572, 본관 昌寧), 成運(大谷, 1497-1579)과는 막역한 사이였고 의장이기도 한 金千鑑(健齋, 1537-1593, 본관 彦陽)과 기대승과 혼맥을 맺는 金堧을 제자로 두었다. 김인후보다 세 살 아래인 유희춘은 해남 출신으로 담양에 거주하였으나 종성과 은진에서의 19년간 유배 기간이 말해 주듯이 정치적으로 순탄하지 않았다. 유희춘은 김종직-최부 계열로 이어지는 가학의 전승 속에 김인후와 함께 金安國, 최산두 학맥으로 연결되고, 許曄(草堂, 1517-1580, 본관 陽川)의 아들인 許箴(岳麓, 1548-1612), 許筠(荷谷, 1551-1588)⁵¹⁾을 제자로 두었

50) 『陶谷集』 卷16, 「司憲府監察梁公墓誌銘」. “公仍戒子姪曰, 吾家以孝相傳, 本無文券, 爾等各自祇飭, 無忝所生. 以小學三綱行實等書, 訓誨子女.”

51) 허봉은 기대승의 사후 사관으로 있으면서 경연에서 했던 말을 뽑아 『논사록』 2권을 만드는 인물이다. 『高峯集』 附錄 1卷, 「諡狀」(李植 撰).

다.⁵²⁾ 허엽은 서경덕에게 배웠고 유희춘과 마찬가지로 김안국 문하에도 있었다. 광주에서 태어난 기대승은 특별한 사승 관계없이 가학을 통해 학문을 익혔고⁵³⁾, 鄭雲龍(霞谷, 1542-1593, 본관 河東), 崔慶會(日休堂, 1532-1593, 본관 海州), 고경명 등이 그의 문하에서 배우고 정철도 그에게서 배웠다. 김인후의 제자로는 만사위이자 제자인 조희문, 둘째 사위이자 제자인 양자징 이외에도 奇孝諫(錦江, 1530-1593, 본관 幸州), 卞成溫(壺巖, ?-?, 본관 草溪) 등이 있다.

김인후-이항-유희춘-기대승으로 이어지는 혼맥은 호남의 이름을 당대에 전국적인 ‘별칭’으로 각인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것은 학술의 파급력이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유학사의 지평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⁵⁴⁾

16세기 호남유학의 흥기와 관련하여 여전히 불분명한 것은 기대승의 『주자문록』 편정에 사용되었던 『주자대전』의 소재다. 이것이 중요한 까닭은 이 점이 확인되어야 당시 호남유학의 『주자대전』에 대한 이해와 기대승의 주자학에 대한 학습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기대승은 당대 조선에서 『주자대전』을 완독했던 첫 세대에 속한다. 기대승은 『주자대전』을 통해 주자학을 통독한 결과, 주자학 이론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학식을 쌓는다. 그런 바탕에서 김인후, 이항, 정지운, 이황, 노수신 등과 태극음양, 인심도심, 곤지기, 사단칠정에 대한 학술토론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황의 『주자서절요』와 규모가 다른 기대승의 『주자문록』 편정 작업에는

52) 『岳麓集』, 「墓碣銘」(金世濂 撰). “少師柳眉巖.”

53) 기대승이 이황을 ‘선생’으로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스승과 제자’로 보는 것이 기존의 통설이다. 그러나 기대승이 이황을 사사했다는 직접적인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54) 유희춘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유희춘은 조선유학의 학술적 토대를 다지는 기초 작업을 선구적으로 수행한 인물이다. 그가 수행했던 유교학의 안정적 확산을 위한 학술적 노력, 특히 『주자대전』과 『주자어류』를 교정하고 『詩書釋義』를 총괄했던 것은 유학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학술적 작업이다. 이러한 일은 유가철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학술 일반에 대한 조예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또한 『續蒙求』를 비롯하여 『歷代要錄』·『續諱辨』·『川海錄』·『獻芹錄』·『朱子語類箋解』·『玩心圖』 등의 저술도 새로운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홍주송씨 가문에 속한 송정황의 기여⁵⁵⁾와 광산김씨 가문의 김윤제의 지원이 큰 몫을 하였다. 김윤제나 송정황도 혼백의 관계망에서 김인후와 연결되어 있다. 김윤제는 나주목사를 역임하면서 『주자문록』의 출판을 지원했고, 김인후의 문인이기도 한 송정황은 김윤제의 조카사위다. 송정황의 아들이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宋濟民(海狂, 1549-1602)이다. 이처럼 기대승의 『주자문록』 편정과 간행은 호남의 유력한 재지적 기반을 갖추었던 광산김씨 가문과 홍주송씨 가문을 비롯하여 학술적으로 두각을 나타냈던 울산김씨 김인후, 선산유씨 유희춘 등 지역의 공동체가 조력한 셈이다.

호남유학에서 학술논쟁의 주제는 네 가지로 압축된다. 이항과 기대승의 태극음양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는 와중에 김안국과 김정국 형제에게 배웠던 정지운의 ‘천명도설’에 대한 해석이 논란이 되고, ‘천명도설’에 이어서 ‘사단칠정론’의 문제가 토론된다. 그리고 李延慶(灘叟, 1484-1548, 본관 慶州)의 사위이자 문인이었던 盧守愼(蘇齋, 1515-1590, 본관 光州)과의 인심도심에 대한 문제가 논의된다. 이와 같은 논의 순서는 우연히 제기된 것만은 아니다. 이 단계 자체가 성리학의 공부의 단계이기도 하다. 소학적 실천을 통해 신유학의 가치와 규범에 대한 몸 공부가 수행된 이후에, 성리학의 형이상학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는 것이다. 태극음양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하여 리기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갖추어야만 그 다음 단계의 사단칠정을 다루는 심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진다. 정지운의 천명도설은 추상적인 이론을 도해한 것이지만 논리정연한 이론체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중간적 단계에 속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인심도심의 문제와 연계되는 수양의 논의가 제기되는 것이 논의 순서이다. 호남의 학술토론은 전국단위로 확산된다.⁵⁶⁾

태극음양의 문제에 있어서 기대승은 이항과의 토론을 통해서 성리학의 리학적 측면과 기학적 측면이 혼재하던 당대의 학술을 정주성리학적 방향으로

55) 『朱子文錄』續集, 「卷後」(宋廷篁).

56) 호남유학의 전개과정에서 성리학의 보편이론에 대한 지역적 토론이 전국단위로 확대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문제는 지성사의 측면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정리를 시도한다. 태극음양의 통합적 이해를 주장하는 것이 이항의 입장인데, 이것은 기대승이나 김인후가 보았을 때 理氣一物의 관점이다. 따라서 태극음양으로 논의되고 있는 리와 기가 비록 不相離하면서 不相雜하지만, 기대승과 김인후는 ‘태극은 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⁵⁷⁾

그러나 리기의 짝 개념⁵⁸⁾을 심성 개념과 연동하여 토론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이항은 사단을 리로, 칠정을 기로 분개해서 보려는 관점인데, 기대승은 8여년을 끌면서 반대한다. 기대승은 “희·노·애·락·측은·수오·사양·시비의 리가 혼연히 속에 있는 것은 바로 그 본체의 본질이지만, 혹 기품이나 물욕의 구애와 가림을 받게 되면 리의 본체는 본래 그대로 여전해도 그 발현된 것에는 昏·明·眞·妄의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기품과 물욕의 얽매임을 다 제거한다면, 그 본체의 유행이 어찌 해가 땅을 두루 밝게 비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⁵⁹⁾라고 한다. 이항이 희노애락을 사단과 분리하여 보려한 반면, 기대승은 희노애락이 “사단과 분리되지 않은 연속된 감정”이라고 보는 것이다.⁶⁰⁾

완결되지 않은 학적 쟁점의 분기는 후속하는 세대들의 또 다른 논쟁을 기다리고 있었다. 태극음양에 관한 논의는 호남유학의 토대에서 서경덕의 이론을 계승⁶¹⁾하고 있는 朴淳(思菴, 1523-1589, 본관 忠州)에 의해 이어와의 논변으로 확대된다. 사단칠정과 인심도심에 대한 미진한 논의는 成渾(牛溪,

57) 태극음양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라. 김경호, 「일제 이항과 고봉 기대승의 교류와 논쟁에 대한 재독해- 1560년대를 전후한 호남유학의 철학적 문제의식」, 『울곡사상연구』 Vol. 29, 울곡연구원, 2014.

58) 기대승과 이항, 이이를 비롯한 조선성리학의 리기 개념에 대한 흐름과 사유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김경호, 『동양적 사유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 리와 기의 조화와 충돌 그리고 탈출』, 과주: 글항아리, 2012. 189-274쪽.

59) 『高峯集』 『兩先生四七理氣往復書』 上 卷1, 「高峯答退溪論四端七情書」.

60) 김경호, 「빈락에 대한 성찰-고봉과 퇴계의 경우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Vol. 34,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6. 27-30쪽 참조.

61) 서경덕의 학맥을 잇고 호남유학자 중 한 사람이 나주 출신의 정개칭이다. 그의 문하에는 호남의 유력한 가문 출신들의 자제들이 대거 운집하여 문생이 400여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정여립 모반사건에 연루되어 체포(1589)되어 유배지인 함경도 경원의 아산보에서 사망(1591)한다.

1535-1598, 본관 昌寧)과 이이에 의해서 재연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이들의 학술적 토론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은 성혼과 이이가 호남유학의 학술 경향과 미묘하게 달아 있다는 점이다.

성혼은 16세기 전반에 ‘은일적 도학자’의 면모를 보여주었던 成守琛(聽松, 1493-1564)의 아들이다. 성수침은 조광조의 문인으로 사문인 호남출신의 양팽손, 양산보 등과 교유하였고, 송순, 김인후 등 당대의 호남 명유들과도 친교를 나누었다. 그러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성혼은 1551년에 申汝樑(15015-1580, 본관 高靈)의 딸과 순천에서 혼인하면서⁶²⁾ 호남지역의 인사들의 주목을 받는다.

부친 성수침의 학문적 인맥에 더하여 혼맥을 통해 성혼은 호남지역의 동년배인 정철뿐만 아니라 젊은 사류층과 연계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그의 문인 가운데 호남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게 된다. 양자징의 아들인 梁千頃, 梁千會, 梁千運(瀛洲, 1568-1637)⁶³⁾을 비롯하여 安邦俊(隱峰, 1573-1654, 본관 竹山) 등 호남유생들이 성혼의 제자가 되는 것도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안방준은 11세에 퇴계문인이었던 朴光前(竹川, 1526-1597)에게 수학하고, 14세에는 자형인 朴宗挺(蘭溪, 1555-1597)에게 배우다가 19세(1591년)에 과산(과주)으로 가서 성혼의 문인이 된다.⁶⁴⁾ 게다가 안방준의 경우에는 아들 安厚之가 성혼의 아들인 成文濬(滄浪, 1559-1626)의 차녀와 혼인하여 사돈관계를 맺게 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호남의 보성을 중심으로 우계학맥의 근거를 마련된다.

호남유학의 핵심 축을 이루었던 ‘김인후-이항-기대승’에 의해서 촉발되었던 태극음양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리기론적 사유와 천명도의 문제, 사단칠

62) 『牛溪集』, 「年譜」, <嘉靖三十年辛亥>(1551, 17세). “七月. 聘高靈申氏于順川郡. 先生外舅申公汝樑, 時爲順川郡守.”

63) 『陶谷集』 卷16, 「司憲府監察梁公墓誌銘」. “監察公與其兄千頃, 千會, 出入牛溪先生之門, 少兒賞於重峰趙文烈公, 清陰金文正公亦與交厚.”

64) 『隱峯全書』 附錄上, 「年譜」. “先生十一歲. 就學于竹川朴先生, 竹川諱光前, 字顯哉, 退溪門人… 先生十四歲. 蘭溪朴先生受學, 蘭溪諱宗挺, 字應善, 乃先生姊夫也… 先生十九歲. 四月, 往坡山, 行贊禮于文簡公牛溪成先生.”

정과 인심과 도심의 문제들은 후속세대인 ‘박순-성혼-이이’의 성리 철학적 논제로 심화된다. 호남유학의 철학적 사유가 이 지역의 학자들과 혼맥을 통한 학술적-인맥적 친연성을 갖고 있는 성혼과 이이 문하의 우울학맥으로 경도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

VI. 마치며

이 글을 구상하면서 논자가 유념한 것은 16세기 호남유학이 이전 시기의 유학과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면, 그러한 동인과 힘은 무엇에서 비롯하였을까 하는 물음이었다. 이 점을 해명하는 것은 호남유학의 16세기적 특이성을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라 16세기 조선유학의 특징을 가시화 하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16세기 호남유학의 수준은 곧 당대 조선유학의 수준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의문을 풀어나가는 단서를 논자는 훈인의 관계망에서 찾았다. ‘훈인’이라는 관계의 재구성양식은 이질적인 사람들을 유기적으로 동기화 하면서 연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 속의 삶을 변형하고 이전과는 다른 사유를 발아하고 확장한다. 따라서 논자는 훈인의 역동적인 측면을 학적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사유함으로써 16세기 호남유학의 특질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이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16세기 전반기 김인후를 중심으로 한 호남의 혼맥이 매우 광범위하고 다층적인 가문의 결합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김인후 자손들의 훈인은 同族 집단의 일원이었던 개인이 異宗族 집단에 포함됨으로써 종족간의 지속 가능한 접속의 계기성을 제공하고, 동시에 이 과정을 통해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인맥과 학적인 관계망 또한 구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증적인 자료를 통한 검증의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16세기 호남의 훈인을 통한 인적 교류는 ‘사회적 유동성’을 확장하는 계기로 작동하였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점에서 논자는 훈인의 과정

에 수반되는 다양성의 혼성과정은 새로운 16세기 호남유학의 집단적 응축과 연대와 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동하였다고 판단한다. 김인후와 연관되는 가문의 구성원과 그 후손들의 집단적이면서도 공감적인 사유의 지점에는 특별히 16세기 호남유학에서 강조되었던 ‘소학적 실천’의 내면화와 ‘효행’의 일상성이 자리하고 있다. 소학과 효는 16세기 호남유학의 공감장을 구성하는 핵심 요인이었다.

끝으로 16세기 혼인을 통한 호남의 가족구성 관계망을 오늘의 시점에서 재독해 한다면, 그것은 익숙한 것들에 의한 자가 복제의 유혹을 넘어서 있다는 것이다. 혼인에 의해 형성된 인적 관계망이 학술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확장될 수 있었던 힘은, 다름의 공존 방식에 대한 재발견에서 비롯한다. 다시 말하면, 호남유학이 16세기 중반에 부상할 수 있었던 여건은 혼맥으로 연결된 공동체의 우수한 학술인력의 양성과 지원에 있었고, 이들의 상호 신뢰를 전제로 한 학술정보의 교환과 활발한 토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⁶⁵⁾ 낯선 것에 대한 긴장과 이완을 통해 상호 존중과 공존의 지혜를 구축해 나갔던 16세기 호남유학은 이전의 유학과 다른 지평에 있음을 보여준다. 호남유학의 부상과 명멸도 다름에 대한 감성적 사유에서 비롯하였다는 것은 성찰적 과제다.

※ 이 논문은 2018년 2월 19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8년 2월 19일부터 3월 1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3월 1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65) 김용헌은 16세기 조선에서 다양한 성리학 이론이 분출한 이유를 “치열한 논쟁”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김용헌, 위의 논문, 71쪽 참조.

참고문헌

『高峯集』, 『陶谷集』, 『慕齋集』, 『俛仰集』, 『眉巖日記』, 『眉巖集』, 『西河集』, 『岳麓集』, 『燃藜室記述』, 『牛溪集』, 『栗谷全書』, 『橋亭遺稿』, 『隱峯全書』, 『朱子文錄』, 『通書』, 『河西集』, 『龍仁李氏分財記』

고영진, 『호남사림의 학맥과 사상』, 서울: 해안, 2007.

김경호, 『동양적 사유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광주: 글항아리, 2012.

김경호, 『감성의 유학』,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2014.

박미혜, 『유교 가부장제와 가족, 가산』, 서울: 아카넷, 2011.

정창권,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서울: 사계절, 2003.

이광규, 『한국의 가족과 종족』, 서울: 민음사, 1990.

안진오, 『호남유학의 탐구』, 서울: 이회문화사, 1996.

이을호, 다산학연구원 편, 『이을호전서』 vol.8, 서울: 예문서원, 2000.

권수용, 「소쇄원의 역사와 인문활동 연구」, 전남대학교 문화재협동과정 박사학위 논문, 2008.

권용혁, 「한국의 가족주의에 대한 사회철학적 성찰」, 『사회와 철학』 Vol. 25,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13.

김경호, 「16세기 조선 지식인 사회의 ‘심경’ 수용과 철학적 담론의 형성」, 『동양 철학』 Vol. 19, 한국동양철학회, 2003.

김경호, 「일제 이항과 고봉 기대승의 교류와 논쟁에 대한 재독해- 1560년대를 전후한 호남유학의 철학적 문제의식」, 『울곡사상연구』 Vol. 29, 울곡연구원, 2014.

김경호, 「불온한 공감-존재의 사유, 너머」, 『한국철학논집』 Vol. 52,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7.

김경호, 「빈락에 대한 성찰-고봉과 퇴계의 경우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Vol. 34,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6.

김덕진, 「양산보의 기묘사화 체험과 소쇄원 건립」, 『역사학연구』 Vol. 30, 호남사학회, 2007.

- 김용현, 「조선전기 사림과 성리학의 전개와 특징」, 『국학연구』 Vol. 19, 한국국학진흥원, 2011.
- 김일근, 「면양정 송순 자필본재기의 문화사적 의의」, 『고문연구』 Vol. 10, 한국고문연구회, 1997.
- 박학래, 「조선시대 호남유학의 전개 양상과 의의 - 지방분권시대의 전통사상 연구와 관련하여」, 『철학연구』 Vol. 99, 대한철학회, 2006.
- 신규수, 「조선시대 유배형벌의 성격」, 『한국문화연구』 Vol. 23, 한국문화연구원, 2012.
- 유영옥, 「미암 유희춘의 존주자 학풍과 경서언해」, 『동양한문학연구』 Vol. 26, 동양한문학회, 2008.
- 이성임, 「16세기 송덕봉의 삶과 성리학적 지향」, 『역사학연구』 Vol.45, 호남사학회, 2012.
- 이정선, 「가족사, 가장 오래된 새로운 역사- 한국 근현대 가족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역사비평』 Vol. 104, 2013.
- 이종범, 「15세기말-16세기 중반 전라도 유배인의 활동과 교유양상」, 『역사학연구』 Vol. 41, 호남사학회, 2011.
- 전경목, 「분재기에 나타난 조선시대 생활 풍속의 변화」, 『대동사학』 Vol. 1, 대동사학회, 2002.
- 정재훈, 「조선전기 소학 이해와 그 학습서」, 『한국계보연구』 Vol. 6, 한국계보연구회, 2016.
- 조기영, 「하서 김인후의 <효부>에 대한 고찰」, 『동양고전연구』 Vol. 41, 동양고전학회, 2010.
- 지철호, 「조선전기의 유형」, 『법사학연구』 Vol. 8, 한국법사학회, 1985.
- 한예원, 「양산보의 <효부>와 <소학> 정신에 관하여」, 『한문교육연구』 Vol. 31, 한국한문교육학회, 2008.

Abstract

The 16th Honam Neo-Confucian shown in Matrimonial Alliances

Kim, Kyung-ho

This essay aims to study how matrimonial alliances are related to academic genealogy in Honam district, and how academic discussions among the network can be understood. In other words, I would like to explore the layers and outcome of the 16th Honam Neo-Confucianism through "Family Making", which is one of the usual and repetitive experiences in human society.

In this essay, I'm focusing on marriage from a perspective of social,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 making. The reformation of human relations through marriage makes heterogeneous people closely connected and results in new ways of thinking and living. I tried to look at Joseon Neo-Confucianism in a different way on the basis of matrimonial alliances around Inhu Kim, and found out that the 16th Honam Confucianists tried to realize the Way in their everyday lives. This research is also to find the identity of Honam Confucianism from the horizon of Joseon Confucianism.

As a result, the social network of the Honam district by means of the matrimonial alliances around Inhu Kim propose two implications with us. First, the matrimonial alliances provided a growth engine for

indigenous Confucian by being connected with both academic and human network. Second, the academic network on the basis of matrimonial relations inspired Honam Confucianists to introspect themselves and have the spirit of filial piety, and provided the foundation of the originality and identity of the Honam district.

key words

Family Make-up, Social Network, Marriage Alliance, Academic Genealogy, Elementary Learning, Filial Piety, Sympathetic Field